

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, 배달·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 산재·고용보험 지원



최호정
서울시의
회 의장
(국민의
힘, 서초
4)이 배
달·물류·
대리운전
등 플랫
폼 노동자
들의 사회
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「서
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리
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안」을 발의했다.

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·이동노
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
고 있으나,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

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
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
정이다.

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, 비
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, 늦은 시간 시
민의 안전한 귀가를 돋는 등 우리의 일
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
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
다.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
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
어렵고, 디저트 일을 없어도 스스로 감
당해야 한다.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
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
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.

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
이 있지만, '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
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
지원'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

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
된 적이 없었다.

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
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
지원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
지,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
적으로 명시했다.

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첫째,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·절
차·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
상시켜 정체의 실효성을 확보했다.

둘째,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 없
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
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.

셋째,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금
지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.

넷째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·「고
용보험법」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갖

췄다.
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
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
실제로 작동하게 된다. 복잡한 '근로자
성'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
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, 중복
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
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지원을
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
인다.

최호정 의장은 "서울시가 보험료 일
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
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
것으로 기대한다"라며, "서울에서 일하
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
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
다하겠다"라고 말했다.

이장성 기자

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"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잘 쓰였는지 철저하게 결산검사" 당부



경기도의회(의장 김진경)는 12일 예
단체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
위촉식을 개최했다.

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총 13
명으로, 김도훈(국민의힘, 비례)·이호동
(국민의힘, 수원8)·임창희(더불어민주
당, 광주2) 의원을 비롯해 재정·회계 분
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
인회계사 3명, 세무사 3명, 시민사회단
체 관계자 1명, 재무·예산 전문가 3명
등으로 구성됐다.

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4월 16일부
터 5월 15일까지(30일간) 경기도 및 경
기도교육청,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
지방재정 관련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
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
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, 낭비 사례 등

을 종합적으로 검사·분석하여 결산검
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.

대표위원을 맡은 김도훈 위원은 "이
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법
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펴보고, 보다
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개
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
하겠다"고 밝혔다.

김진경 의장(더불어민주당, 시흥3)은
"예산안 심의가 한 해의 정책 방향을 정
하는 설계라면, 결산검사는 그 목적이
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하는 완성의
단계"라며 "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목적
에 맞게 잘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 투
명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이뤄지길 바
란다"고 당부했다.

송민수 기자

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, 행정체제 개편에 부합한 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 촉구



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(국·연수구1)
이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실행에
들어가는 인천시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

하는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인 도서
지역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.
정 의장은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

제3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종료 후
'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및 합리적
인 도서지역 선거구 획정 촉구'를 위한
결의대회를 개최했다.

이번 결의대회는 지난 3일 정해권 의
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의 취지를 인
천시민과 중앙정부, 국회에 널리 알리
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
해 마련됐다.

이날 결의대회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
롯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인천시의 인
구 규모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
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필요성
에 한목소리를 냈으며, 인구 305만 인
천시의 위상에 걸맞는 의원정수 확대와
도서지역 주민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
강력히 요청했다.

결의문 낭독은 정해권 의장과 유경희
문화복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.

정 의장과 유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
해 "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 수가 과
도하게 많은 현 구조에서 인천 시민 주
권자 한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
고 있다"며 "도서지역의 생활·교통 여
건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
또한 반드시 필요하다"는 결의대회 취
지를 밝혔다.

정해권 의장은 "305만 인천시민이 차
별없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와
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"며 "인천시의
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인천 시민
의 위상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끝까지
역할을 다하겠다"고 다짐했다.

심하린 기자

하남시의회, 복합특수학급 신설 '한목소리'



동행'의 교육 환경 구축이 필수적임을
피력했다. 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
기관에 이송하여 하남형 통합교육 실현
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
계획이다.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요 현안
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.

먼저 금광연 의장이 발언대에 올랐
다. 금 의장은 "교산 기업이 전부지 개발,
공영주차장 확보가 먼저입니다"를 주
제로, 상산곡·광암 기업이 전부지 내 주
차장 계획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공영주
차장을 '의무 기반시설'로 규정해 종분
한 주차 면수를 확보할 것을 집행부에
주문했다. 이어 정병용 부의장은 "인사
가 만나..하남시, 인사가 망사"라는 제
하의 발언을 통해 하남시공사와 하남
문화재단 등 출자·출연기관장의 반복
되는 인사 잡음을 질타하며, 투명하고
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너
진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
리를 높였다.

.

.

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"이번
회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 환경
개선부터 도시 개발의 필수 기반 시설
점검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시안들을
심도 있게 다뤘다"라며 "집행부는 의결
된 건의안과 조례, 그리고 의원들의 제
언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2026년이 하
남의 도약을 이끄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
다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송민수 기자

시흥시의회, 「시흥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」 제정



시흥시의회(의장 오인열)는 지난 11
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「시흥
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」(대표발의:
김수연 의원)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
최했다.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, 고령자,
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물리적·심리적
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
수 있는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
됐다.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안을 발
의한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등 총 20명
이 참여하여,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
제도적 방향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
집중적으로 논의했다. 조례안의 주요

내용은 ▲무장애 도시 조성의 법적 기
반 마련 및 주민위원회 구성 ▲무장애
시설 점검 및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
계 구축 ▲참여 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
원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다.

참석자들은 국내·외 우수 사례와 시
흥시의 현장 실태를 공유하며, 무장애
도시 조성에 대한 근거와 실효성을 확
보하는 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특히 시흥시의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
위해 복지·도시정책·교통 등 관
계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
다. 현장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적극 반
영한 시민사업을 추진하여 시행착오를
줄이고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.

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
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
서와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가며, 실행
력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가
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
이천시의회, 추위도 녹이는 따뜻한 배식 봉사



더했다.

단순한 봉사를 넘어 이용자들의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, 생활 속 불편함과 건의사항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마련했다. 특히 지역 장애인 복지 위해 혼신하고 있는 복지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며 더 나은 복지환경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.

박명서 의장은 "명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한다"며, "앞으로도 이천시의회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 곁을 지키는 따뜻한 정의활동을 이어가겠다"고 전했다.

한편 이천시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지
역사회와 나눔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으
며,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의정
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.

송민수 기자

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따
뜻한 나눔이 이어지는 가운데, 이천시
의회(의장 박명서)는 12일(목) 이천시
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온정을 나누는
뜻깊은 시간을 가졌다.

박명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
회사무국 직원 등이 함께 참여해, 복지
관 이용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
다. 의원들은 한 분 한 분과 눈을 맞추며
따뜻한 덕담을 건네고, 정성껏 식사를
전달하며 명절을 앞둔 복지관에 온기를

